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생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어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1 ☎ 02-552-8200 ©2007 중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1)

마가복음은 평신도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 그 자체이며,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와 앞으로 본지에 연재(6면 참조)될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7차 성찬식이 1~5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찬양집회)

즐거움 (이사야 9:2~7)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도 없고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신 12:7, 12 : 느 8:10)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하는 천사도 큰 기쁨을 전하여 주고 있고(눅 2:10)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빌 3:1) 기쁨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상 18:6) 구약에 나타난 기쁨은 떠들썩하고 뛰고 밝고 빛난 눈 같고, 감탄하고 원을 그리며 익살스럽게 움직이기까지 한다.(행 3:8 : 시 13:5)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가도 말해 주신다.(시 33:1~3)

성경을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무섭고 단호하고 거룩하신 분으로만 생각한다.

과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구속하셨다는 것에 있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내가 빛을 지고 그 빛을 해결하지 못해 수렁에 있을 때 한 부자 친구가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자.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이었다. 죄로 인하여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나의 삶은 심판의 날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지拂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과거에 일어난 화목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롬 5:11)

미래(장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미래에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바라고”는 엄청난 확신을 뜻한다. 장래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세상에서는 찾기 힘들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종말만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끝이 없는 영원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아는 것이다. 이미 나의 과거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기쁨’(카라Chara, 헬)은 ‘은혜’(카리스Charis, 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드셨고 시간을 내어 어린 이들과 함께 하셨다. 감동이 심까해진 상황에서도 기뻐하셨다.(눅 10:21) 가난한 초대교회 교인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행 2:46~47) 그러나 소위 메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서 심각한 모습만 있지 않은가? ‘행복’은 ‘Happiness’이다. 이 단어는 ‘Happening’(사건, 사고)과 어원이 같다. 그러므로 행복은 상황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행복은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끔 되었을 때 너무 지쳐버리고 만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며 사는 날마다의 삶 속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한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 반면에 기쁨은 상황적인 것이 아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복음으로 인한 순간순간의 축제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롬 5:3) “환난”은 스트레스에 의해 눌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며 담대하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이 타격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심과 기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갈 5:22) 크리스마스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과거가 없다면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장래의 참 소망과 다시 오실 약속이 내 마음속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할 수 없다. 처음과 끝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사 9:2, 6~7) 아멘.

CHEATER TURNED CHARITABLE

⁽¹⁾And He entered and was passing through Jericho. ⁽²⁾And behold,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eus; and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rich. ... ⁽³⁾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⁴⁾"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10)

Zaccheus was a chief tax collector in Jericho, which implies that he was responsible for the entire city's taxes and probably had other collectors under him. He had a bad reputation for abusing the system through extortion for his own personal gain. This man met Jesus Christ as He was passing through Jericho. (v. 1) Jericho was a sinful city, but Jesus wanted to meet this tax collector. No one expected this terrible sinner from this horrible city to get saved. How can bad people change? When the sinless Savior comes to town, things can happen: like the conversion of a man nobody thought would be saved.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struggle of Zaccheus in coming to Jesus.

Zaccheus' past life was about cheating others to get ahead. Today's Bible passage tells us, "And there was a man called by the name of Zacch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rich." (v. 2) A rich publican in those days suggests major corruption. This man loved money, and his love for money made him dishonest. Everyone knew about his practices. His own people considered him a traitor. The passion for money leaves one empty, and always desiring more and more. I know that anyone who loves money will always be disappointed, just like Zaccheus. Inside he was a prisoner who wanted to be free. He hoped Jesus could set him free.

Zaccheus was a short man. The Bible says, "Zaccheus was trying to see who Jesus was, and was unable because of the crowd, for he was small in stature. So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in order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rough that way." (vv. 3-4) Whenever the Holy Spirit moves you, circumstances always get shorter. Real Christians commit and pursue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tall crowd made it difficult for a short man to see Jesus. Zaccheus could have easily given up with good reasons, but to what advantage? Jesus was passing through, and Zaccheus knew he might not ever get another chance. He was willing to put forth the extra effort required. Imagine a chief tax collector climbing a tree. Why? He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Jesus, even if it meant he could only see Him. His name, face, and character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go to a small town church where everyone in the congregation hated him. He threw out his pride and fame and climbed a tree. He did not care if people laughed because inside his desire focused on Jesus. Sometimes a sinner's heart is weak, but if you are really looking for truth, then Jesus will meet you. We all fall short,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but those who drop their pride and whose real desire is faith, not money or gestures without heart, will find Jesus.

If people start laughing and making fun of you, will you still climb a tree to see Jesus? If yes, then Jesus will see you. The Bible says,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eus, hurry and come down, for today I must stay at

your house.' And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gladly." (vv. 5-6) Jesus responded to Zaccheus' faith. Ephesians 2:8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Zaccheus had to come down from the tree to be saved. If Jesus asked you the same question, would you hurry down, or would you have a million reasons of why not? Would you tell Jesus that your house wasn't ready for guests or that you would not have enough money for food? Perhaps you would tell him that you were too tired or too busy to be a good host.

The crowds did not like the fact that Jesus was going to stay with Zaccheus. They grumbled,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is a sinner." (v. 7) Jesus focused on Zaccheus, not the crowd, at this point. The crowd knew the kind of man Zaccheus was, and they were not pleased with Jesus' decision to visit him.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ere. They all crowded around Jesus, but the common mass did not get an answer. Only the seeking poor, sick, and simple get the right answer. Can you get the same answer as Zaccheus? Can you really find this perfect answer? The Gentile woman whose daughter was demon-possessed fell at the feet of Jesus asking him to heal her daughter because she had heard of Him. (Mk. 7:25-26) She dropped all her pride, and just cried out with her one desire to ask Jesus. Can you do that?

After Jesus called Zaccheus down from the tree, "Zaccheus stoppe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v. 8) What a change! Jesus called and Zaccheus turned from a cheater to a charitable man. Instead of wanting to take from others, his heart desired to give to others. Now that his life had been changed by Christ, his intentions were pure not polluted. When you come to Jesus, He will change your sinful nature.

Jesus told Zaccheus in front of everyone,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vv. 9-10) Zaccheus was a believer. Today salvation has come to your house. Do you want it or not? Jesus came down to this earth to save the lost. Are you lost? Do you think you are a lost one or do you think you are a big chief more special than anyone else? My friend, we are all sinners. We are all lost. Not one more sin is needed to be lost forever. Jesus Christ died for sinners. When a sinner comes to Christ he receives salvation, hope, fellowship with God, and eternal life. Why not come to Him now? Jesus was passing through Jericho in the same way He is passing through your life right now. He is looking for you, but He is only here for a short time. If you keep delaying He will continue walking down the road. You must overcome whatever obstacles are in your way and get a glimpse of Him. Jesus will handle the rest. 

【다음 주일 설교】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기꾼

① 예수께서 여기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②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③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④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10)



김성관 목사

삭개오는 여기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기고 전체의 세금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던 그는 수하에 여러 명의 세리들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을 착취하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가 여기고를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여기고는 적악이 판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이 세리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끔찍한 도시에 사는 악한 죄인이 구원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무 죄 없으신 구세주가 찾아오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자가 회개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 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과거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 그 당시 부유한 세리는 심각한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고, 돈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돈에 대한 그의 갈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더욱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삭개오가 그랬듯이 언제나 실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유를 원했던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기 위하여 뿔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3~4절) 성경이 감동시킬 때면 상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그 일을 해 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앞이 가려져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평계리리를 대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셨고, 삭개오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소위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다니,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뭐니까?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지라도 말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 신분으로는 조그만 도시의 회당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집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던져버린 채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말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때로 죄인의 마음은 열려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 3:23)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자들, 즉 마음에도 없는 행동이 아니라 돈이 아닌 믿음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비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서 내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

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5~6절)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8은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삭개오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사들러서 밀로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늘어놓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집에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어딘지, 음식을 준비할 돈이 충분치 않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람도 있을 지 모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7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무리들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무셨다는 예수님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진리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은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정말로 이 확실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들은 한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막 7:25~26) 그녀는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뒤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해낸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8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는 사기꾼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도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때 묻지 않고 순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인된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10절) 삭개오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도 임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보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를 더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죄인은 구원과 소망,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기고를 지나가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잠시 동안만 여기에 머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머물러있든만 곧바로 예수님은 저만치 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껏 쳐다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

2007년 제3차 청지기훈련 “교회에 필요한 영적 부흥”(하박국 3:2)

교회에 필요한 영적 부흥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영혼의 작은 고백

2007년의 마지막 청지기훈련, 몇 주 전부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길과는 반대로 너무나 멀리 가 버린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번 청지기훈련에서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는 성도를 위한 교회가 대부분이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바른 알남을 주장해 주신 사 하는 이기적인 기도로 넘쳐난다. 그러나 연합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여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심상은 사탄의 종인 악한 존재였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온유하지 못했으며,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는커녕 교단과 위선의 독한 냄새를 풍겼을 뿐이다.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 대신 진리와 사적인 대화를 즐겼으며, 겸손한 말 대신 자랑하는 말을 즐겼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보셨을 텐데, 연합한 믿음의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에 대한 기쁨을 토로하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며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내 친구가 되고 아버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세상 끝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은 내 곁에 계시길 믿는다. 내가 내 뜻을 간구하여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모든 일정을 묶어 버리셨다. 온전히 주님이 내 일정을 주관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까닭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다짐한다. 청지기훈련, 그 짧고도 긴 2 시간 동안 가장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사람인가?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겠다.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마음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피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수빈(고동부)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지 이번 청지기훈련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이었다. “교회에 필요한 영적 부흥” 집회 시간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사람인가?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겠다.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마음과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피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이기여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바쁜 세상일을 핑계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여 내 일이 우선일 때가 많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동안 나는 스스로가 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영의 눈을 뜨라고 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순간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저 천국 봉황에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자신을 부인하며 우상이 아닌 주님을 섬기며 주님 뜻을 준비를 하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송은희(임사, 1교구)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운동부 합숙 때문에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셨다. 주님께로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갈 수 있는 것이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 감사함과 말씀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나는 위임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했다.

“참 종교는 하나님께서 만듬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 목사님의 첫 말씀이었다. 정말 감사했다. 세상의 것,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에 감사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나의 노력은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밖에 없었다. 예수님만이 답이며 십자가만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 교회 가운데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은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주님, 주의 일을 내 가슴속에 일으켜 주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고, 나의 삶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길 원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길이로 진리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가시는 성령님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시길 것을 믿는다. 또한 내가 속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길 원한다. 진실로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나의 심령이 거룩한 진리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서 끝까지 담요되어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김 대(대학부)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며

몇 달 전부터 주님께서는 청지기훈련으로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안에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탐심으로 가득 찼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목사님께 회개하게 하셨다. 삼은 가을 날씨와 더불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부르며 청지기훈련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이 되길 기도했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주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하면서도 바와와 아내를 섞어서 섬기고 있었다. “예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만족하고 사는 자는 아닌가? 주의 품을 떠나 다른 곳으로 혼자 가기를 좋아하며 먹고 즐기는 자는 아닌가?” 질문은 나에게 다가온 책적이 되어 통찰을 받게 되었다.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재라고 매번 들으면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 매순간마다 진재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도 나 자신이 양 갈아서 그릇 행하여 게 잘못 가질 원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내 안에서 주의 일을 부흥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력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길 기도한다. 말씀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길 간구한다.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길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물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아멘.

강소영(임사, 21교구)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 보라도 어두운 이 세상에, 바른 삶 속에 지쳐버린 곤고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우리교회 안에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내게 주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다. “수연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참된 진리의 말씀과 꿋꿋을 수 없는 사람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디베라 바닷가가 되기를 소망하신단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만나 주시사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원하신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편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그 길이 더 바쁘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교회에 올 땐 그 더러운 모습 위에 거룩한 새 옷을 덧입는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는 냄새가 난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얽매어 있고, 회개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에는 영적 부흥을 향한 탄식과 애통함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그간 삶을 온전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이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는 절실했다. 이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약속으로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차례이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옛 습관처럼 또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나가 그들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어둠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길 소망한다.

교회의 참된 주인 예수님!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삶에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낮고 천한 제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아멘.

김수연(원년1부)

✧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이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로 선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웬지 모를 기대감이 생겼다. 설교 중 교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배푸신 은혜를 기록해보자 무서워 버리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소제목 속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을 돌아보게 하셨다. 주일에 바쁘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농담이 내 입에서 나왔으며, 얼마나 많은 말들을 별 생각 없이 쏟아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무수한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제가 되어 버린 일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보다 웃고 떠드는 즐거움에 더 커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푸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묵상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나를 주장할 터인데... 어쩌면 그 누구보다 나의 수다로 자신이 하고 있던 묵상마저 깨어졌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가끔 내 속에 참으로 믿음이 없음을 많이 보며, 주의 일을 하기보다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 하심을 다른 삶 속에서는 감시하게도 볼 기회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나의 모든 긴장의 끈과 주님께 집중하기를 멈춰 버리며 그냥 세상적인 교제만을 누리느라 분주한 것 같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을 향한 애통과 탄식이 있길 소망한다. “주여! 내 안에서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나를 주증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혜정(집사, 3교구)

✧ 십자가의 좁은 길을 향하여

이번 제3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저 자신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먼저 청지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렇듯 빛도 없이 주인을 빛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청지기라면 주님께 빛내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진정한 나의 근심 걱정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저는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는 것을 다 주변의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가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값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렵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잘 살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세상 축복을 받는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처럼”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리우려면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평범 것을 바라보고 않고 위엄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 나기를 다시금 각오하리라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낚마다 부인하며 주님 가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허미자(집사, 24교구)

✧ “진정 너의 주인이 누구냐?”

회사일로 항상 분주했던 나는 청지기훈련에 소극적이었다. 참석하기는 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로 느지막히 다녀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영적인 음성을 들려 주셨다. “진정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너의 시간, 삶, 물질, 가정 그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으셨다. 주님의 짧은 영적인 말씀이었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 주님은 내게 이번 청지기훈련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다.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나는 마음속에 그 옛날 하박국의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이 교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위임목사님은 먼저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교회의 장로들이 새로 세워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주의 몸 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의 영적 부흥의 기초가 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내 심령에 깊은 도전을 주었다. 먼저 나의 심령에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에 따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것이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이다. 청지기훈련 시간 내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나를 돌아보았다. 늘 부흥적인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내 신앙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강단에서 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신 교회가 필요한 영적 부흥은 바로 내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부흥이었음을 우리 주님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임수현(성도, 19교구)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10. 31.)

목사와 교회

(에베소서 4:11~16)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엡 4:1) 이 은총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기초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소망도 하나이다.(엡 4:4)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하나이다.(엡 4:5-6) 특히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은혜”(엡 4:7)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이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은총에서 교회와 목사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목사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주님의 교회에는 각각의 직분이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11)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목사는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직무가 있는 종이다.(딤후 4:5)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목사는 심하게 부패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떠나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고 있다.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무려 세 번에 걸쳐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다.(요 21:15~17) 사실 베드로는 이같은 사명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목사에게 필요하다. 이 믿음이 목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에 교회에 주신 선물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 목사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목사는 사역에서 완전함을 이루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따라서 영혼을 돌보아야 할 목사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은 완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엡 4:12)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목사의 사역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 목사 자신이 먼저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십자가를 통한 거듭남의 은총으로 가득해야 한다. 이 때 목사는 사역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 완전함은 목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목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목사는 사역에서 완전함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몸을 목사와 교회는 사역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찬 242장)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에 있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행 2:4)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다.(행 2:41,47)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행 2:42~46) 이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었다. 따라서 목사와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스테판 집사의 순교(행 7장) 이후에 초대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고통지게 되었다.(행 8:4) 그러나 핍박으로 인한 흠여짐으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 지경을 넘어 땅 끝을 향해 퍼져갔다. “천하를 어찌럽게 하던 사람들”(행 17:6)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결국 복음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의 큰 무리더라”(행 5:14) 목사와 교회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절대로 목사의 업적이나 교회의 공로를 이르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목사와 교회는 사역해야 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목사를 세워 주셨다. 목사는 성도의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한 목사와 교회는 세상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충전제”가 될 것이다. 주님의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에만 순종하자. 우리 모두 십자가로 하나되어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총의 사람이 되자. “주 은총 임은 종들이 주 앞에 었디옵나니. 주 예수 복음 전하러 날 보내 줍소서.”(찬 254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①

마가복음 서론(1:1)

마가복음은 평신도를 위한 복음서이다. 신학적인 성격이 강한 요한복음과는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은 매우 평이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유대의 사경과 아람어에 능숙했던 마가가 기록하였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행 1:13, 5:22, 12:12, 15:37~39)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먼저 쓰여졌다. 특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1~8장은 일하시는 종, 9~10장은 구원함을 입은 종, 11~15장은 고난받는 종, 16장은 승리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위인전이 아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에게 들은 대로 기록했다.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핵심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그리스도의 비천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가복음의 1/3 가량이 그리스도의 수난에 초점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예수님은 메시아인데도 사람들로부터 전대를 받았다. 가족으로부터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낮은 모습이었다.(막 3:21)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해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하였다.(막 3:22) 이같이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거까지 이루고자 한 일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때 마가는 선교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선교하는 일이 힘들어지자 그는 도망을 쳤다. 이것으로 마가의 삶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난 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마가는 완전히 바뀌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가를 찾고 있다.(딤후 4:11 ; 빌립 5:13) 고난의 현장에서 마가를 찾을 수 있다.(골 4:10 ; 몬 1:24) 무엇보다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쉽게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로 쓰임받았다. 이 놀라운 은총이 마가복음 안에 스며들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아멘.

새가족양육부 10월 수료자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



♥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온자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 현)

♥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의 우물증으로 잘못된 생각을 알 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불쌍히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교회 생활이 제 삶과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리 모르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무엇보다도 일상에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김영숙)

♥ 중언교회 근처로 이사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매주마다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한희옥)

♥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중언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생활이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며 죄를 씻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김태원)

♥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식처가 생겨서 종교 성도들과의 교제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연숙)

♥ 교회 생활을 통해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종으로 분들에게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기쁨의 찬송, 기도과 말씀 공부를 하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국수가 참 맛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하여 어려운 일에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영홍)

♥ 우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동건)

♥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곳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공여함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제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주님과 나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소중한 시간임을 느낍니다. (윤성애)

♥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마다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미)

♥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든 늦잠을 자지 않고 단장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된 일로 여겨집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조금씩 숙면에 지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순)

♥ 예수님은 참으로 종으로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차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곽현철)

♥ 예수님은 참 종으로 분이십니다. 또한 주일에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주일에 나오고 교회에 있다는 것에 변화되었음을 느낍니다. (강경숙)

♥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차창욱)

♥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마음속에 무언가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박경혜)

♥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종으로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곁에 계신 주님을 느낄 때가 가장 힘이 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일은 저에게 즐거운 날입니다. (김진선)

♥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족처럼 편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김동연)

(편집국)

수화 칼럼 ⑨ 주기도문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 우리가 2. 우리에게 3. 죄 4. 지은



5. 자를 6. 사하여 7. 준 8. 것



9. 같이 10. 우리 11. 죄를



12. 사하여 13. 주옵시고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1월 5일(화) - 11월 14일(수)	1교구·대학부 연합	구원섭

현제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10월 30일(화) - 11월 7일(수)	교구 간사	임영수
10월 30일(화) - 11월 7일(수)	24·7·8교구 연합	한교고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90	이경아	3	대학부	이수재(3)	1707	임선녀	14	유년부	이수진(17)
1691	송승환	4	고등부	왕희동(20)	1708	이가은	14	유년부	이혜경(3)
1692	유영규	22	청년2부	장혜남(22)	1709	조봉자	24	장년1부	남계순(24)
1693	김성호	22	장년1부	이정연(22)	1710	조봉연	24	장년2부	정금수(24)
1694	신인혜	11	초등부	오광준(11)	1711	배길미	25	외선부	최규태(2)
1695	신수빈	11	유치부	이복순(1)	1712	예디	25	외선부	박윤서(9)
1696	김선미	1	청년2부	이영숙(14)	1713	김영진	2	청년1부	김성택(2)
1697	최희정	6	청년1부	정연재(6)	1714	한태영	4	청년1부	심지현(18)
1698	목두균	7	소망부	왕남빈(7)	1715	홍	25	외선부	김지선(7)
1699	조창희	7	소망부	서인순(14)	1716	고영	25	외선부	나기태(23)
1700	오한나	6	고등부	이미경(6)	1717	틴	25	외선부	김석영(7)
1701	신민수	20	중등2부	김현정(3)	1718	김진수	10	청년1부	곽도은(16)
1702	최금자	9	청년2부	남용승(9)	1719	이강희	1	청년1부	이부성(3)
1703	배리	25	외선부	노수식(5)	1720	최문숙	1	청년1부	윤숙희(6)
1704	박혜진	6	청년1부	조미영(6)	1721	황두홍	1	청년2부	유정자(9)
1705	이현태	7	고등부	오순선(6)	1722	조정희	4	청년2부	한연숙(20)
1706	변지나	17	청년1부	무정자(9)					

*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북쪽사			
박진기 4월 2주	류병희 5월 2주	이국근 5월 4주	안장덕 5월 4주
김익환 4월 3주	장 훈 4월 3주	임학덕 5월 2주	이희식 5월 2주
하승철 5월 2주	안지원 4월 2주	정종신 19월 2주	양재호 5월 2주
최규갑 4월 1주	이재영 4월 2주	이경준 5월 2주	김종희 5월 2주
이재민 5월 4주	유재진 5월 2주	강병구 11월 2주	전성진 5월 2주
양성진 12월 2주	유성태 19월 2주	유현철 19월 2주	박정원 5월 2주
최성준 22월 2주	최강진 22월 2주	박용민 24월 2주	강현철 24월 2주
강도성 24월 2주			이광원 24월 2주
■ 예전도사			
윤인숙 4월 2주	김진식 5월 2주	홍순애 5월 2주	이옥주 22월 2주
김정현 5월 2주	강다목 5월 2주	최효성 12월 2주	전은우 5월 2주
김성희 4월 2주	이복순A 21월 2주	이규진 16월 2주	한성일 19월 2주
강병미 5월 2주	유복자 9월 2주	이복순B 19월 2주	전영희 19월 2주
황승연 5월 2주	김정훈 5월 2주		이혜수 6월 2주
■ 찬양감독			
서문순 김원섭		전영희 노은영	
전정희차 강기순 김원섭		전영희차 장연희 노은영	
전정희차 강기순		전영희차 장연희 노은영	
선 고자 송요한		선 고자 송요한	